

복지관 소식

홍천 북방 고령자복지주택

‘홍천 북방 고령자복지주택, 홍천군노인복지관 개관’

강원도 홍천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23년 기준 1만 9,068명으로 5년 전과 대비하여 4,153명이 늘어 고령화 비율 27.9%로 초고령화 사회 기준 20%를 훌쩍 넘은 상황이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 주민과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LH 건설 시공으로 영구임대 아파트와 홍천군노인복지관이 함께 건립되었다. 총 128세대로 26㎡ 80세대, 36㎡ 48세대이며 임대 시세 30% 정도로 부담이 적은 편이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타일,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 최적화된 생활 시설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

거주하고 계신 나○○ 어르신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은 비도 새고 외풍이 많아 힘들게 살았어요. 여기로 이사를 올 수 있어서 그게 내 생애 가장 큰 기쁨이에요. 홍천군에서 우리 같은



◇홍천 북방 고령자복지주택 전경

노인들을 위해 주택을 지어주어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어르신은 “원래 시골 외딴 곳에 혼자 생활했어요. 근데 여기로 와서 옆집에 있는 이웃들이랑

얘기도 하고 만나서 산책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라며 입주 소감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김○○ 어르신은 “여기 101동 2층에 복지관이 있어요. 가서 들어보니깐 노래, 건강댄스, 컴퓨터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아주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천군에서 노인들을 위한 생활시설을 지어줘서 감사해요.”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고령자복지주택에 홍천군노인복지관이 함께 건립되어 이미용실, 다목적강당,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건강관리와 같은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 간 커뮤니티 활성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 증진과 이웃 관계 맺기를 통한 고립감 해소, 활력소 충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식 기자(dong-sik@hanmail.net)

■■■ 북방 고령자 주택 내 홍천군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 ■■■

순서	요일	시 간	프로그램 명	장 소	대 상 자
1	화	13:00 ~ 14:50	건강댄스	프로그램실 4	북방 고령자주택 어르신 20명
2	수	10:00 ~ 11:50	고령운전자교육	정보화교육실	참여희망 대상자 10명
3	목	10:00 ~ 11:50	실버노래	노래교실	북방 고령자주택 어르신 20명
		13:00 ~ 14:50	건강댄스	프로그램실 3	북방 고령자주택 어르신 20명
4	금	10:00 ~ 11:50	스마트폰 하나로 up!	프로그램실 3	참여희망 어르신 20명
		13:00 ~ 14:50	홍노복 금요 극장(영화관람)	다목적강당	북방 고령자주택 어르신 20명
5	상시	상시	러블리 옥상 텃밭	옥상 텃밭	북방 고령자주택 어르신 20명

※변동사항에 따라 추후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명

- **건강댄스**
주 2회 쉽고 즐겁게 따라 할 수 있는 건강증진 댄스 프로그램
- **고령운전자 교육**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한 고령운전자들

대상으로 2, 4주 마다 진행되는 고령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 **실버노래**
여가 시간을 즐겁고 신명 나게 보낼 수 있도록 춤과 노래를 배우고 즐기는 여가 프로그램
- **스마트폰 하나로 up!**
디지털 문화에 생소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정보화 지식 공유를 통해 유연한 일

상 대처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

- **홍노복 금요극장**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 문화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화관람 프로그램
- **옥상텃밭**
참여 어르신이 모종 심기부터 재배 및 수확, 관리까지 진행하는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CONTENTS

- 02 - 도시재생, 우리 마을 가꾸기
- 03 - 마을 축제로 치러진 색다른 산수연(傘壽宴)
- 03 - 영귀미면 경로당을 찾아서

- 04 -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재정 대책 모색
- 05 - 무의탁 노인정책
- 06 - 말의 중요성

- 07 - 한국의 금융과 자본(5)
- 07 - 인생칼럼
- 08 -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 08 - 인물탐방, 가수 꽃송이



도시재생, 우리 마을 가꾸기

‘우리 마을 가꾸기’ 2023 도시재생은 우리 주민 ‘손’으로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최소영)는 ‘내가 사는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자’라는 취지로 마을학교 수업을 개최하였다. 2023 도시재생 마을학교에서는 홍천읍 신장대리, 희망리, 진리, 갈마곡리 등 여러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한 수업이 한창이다.

최근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탄소 배출량 관리이다. 탄소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무와 꽃을 심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각 마을의 화단을 개성 있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꾸며보자는 취지로 마을학교 수업에 참여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다 함께 꽃을 심고 예쁘게 가꾸기로 다짐했다.

4월 4일 화요일, 갈마곡1리 마을회관에서 ‘꽃과 화초를 심으면 내가 바로 지구 지킴이!’라는 주제로 그린플라워 대표 김경호 강사의 꽃 심기 이론수업과 실습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만드는 우리 마을 가꾸기’ 도시재생 기본 교육으로 꽃 심기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한 기초지식을 배우며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화분에 꽃을 심는 실습을 진행했고, 수강생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교육을 받았다고 만족해했다.



4월 6일 목요일, 2차 수업으로는 마을 어디에 꽃을 심을지 결정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은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만장일치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 수강생들은 도시재생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참여와 소통의 즐거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3차 수업부터는 현장에서 강사의 지도하에 꽃

을 심는 활동을 한다. 참여한 어르신들께서는 ‘꽃밭을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꽃을 심는다니 매우 보람차다’라고 하며 꽃밭을 아름답게 가꾸어 아름다운 마을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마을학교는 4월 4일부터~4월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론수업 2회기를 완강하고, 실습 2차례가 끝난 수강생들에게는 수료증이 증정되었다.

이번 마을 학교 꽃 심기 강사로 활동한 김경호 그린플라워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들이 우리가 사는 마을을 가꾸어 가는 것이 보기 좋고 만족도가 높아 스스로 만족스럽다’라고 밝혔다. 또한 ‘마을학교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라고 하며 꽃이 주는 즐거움과 같이 심는 즐거움을 모두 즐기고 있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복여 기자(boy1145@hanmail.net)



◇마을학교 꽃 심기

마을 축제로 치러진 색다른 산수연(傘壽宴)

“기부를 통한 최재옥 어르신들의 산수연”



산수연(傘壽宴)이란 “여든 살이 되는 해에 베푸는 생일잔치”라고 풀이되어 있다. 지루했던 긴 추위를 견어내고 산천초목이 움트기 시작하는 지난 3월 말일 영귀미면에 있는 체육공원에서는 최재옥 어르신들의 색다른 산수연 행사가 있었다. 요즘은 모든 집안 대소사들을 가족끼리 단출하게 치르는 것이 유행인데 80세 이상의 어르신들 220여 명을 초대해 대규모 마을 축제로 치러진 떠들썩한 행사였다.

홍천군 관내 80세 이상의 어르신 120명이 속해있는 14개의 게이트볼 팀과 전국적으로 막강한 실력을 소유한 1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속한 12개의 게이트볼 팀을 초청하여 성대하고 떠들썩하게 신명 나는 하루를 즐겼다. 우승 2팀 각 30만 원, 준우승 2팀 각 20만 원 등 총 18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준비하였다. 또한 참가 기념품

및 능이 백숙 점심 식사, 행운권 추첨을 통한 선물 꾸러미 등 다양하게 준비하였으며 모든 당일 경비 1,000여만 원을 최재옥 어르신께서 쾌척하셔서 치러진 귀한 행사였다.

최재옥 어르신은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셨으나, 젊은 시절 군 생활을 하였던 ‘홍천’이 그리워 제대 후 바로 홍천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젊었을 때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동안 그라운드골프, 씨름 심판 등을 섭렵하시고 근래에는 고령에도 체력적으로 무리가 없는 게이트볼에 심취하셨다고 한다.

이번 행사도 어르신들의 홍천 사랑에 대한 마음의 보답으로 평소 생각하고 마음먹었던 기부를 통한 산수연 잔치를 부인과 4명의 자녀, 그리고 사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 더욱 빛을 발하였다고 주변 지인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주최,

주관, 후원 등 행사를 치르기 위해 형식상의 활동 주체를 나누어 진행하긴 했지만, 최재옥 어르신들의 활동 역량으로 홍천군 관내의 각종 체육회나 협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끊임없이 열성적으로 참여하신 이력을 보면 이번 행사도 오롯이 어르신 단독으로 가족들의 격려를 등에 업고 추진하고 진행한 가족 행사로 보인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가족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가족 간의 의기투합으로 이루어진 보람 있는 산수연은 지역 어르신들의 섬김 문화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김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기부 문화 확산에 모범을 보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박호관 기자(hokwan_park@daum.net)

영귀미면 경로당을 찾아서

활기 넘치는 영귀미면 속초 1리 경로당 어제와 오늘

2023년 4월 12일, 홍천군 영귀미면 내 속초 1리 경로당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갔다. 홍천군 영귀미면은 공작산과 오음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타사가 있어 많은 등산객과 방문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영귀미면 속초 1리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허남설 회장과 회원분들이 환하게 반겨주셨으며 이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속초 1리 경로당의 성비는 남자 57명, 여자 61명으로 총 118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았다. 2021년까지만 해도 회원이 60여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 경로당 허남설 회장과 이성기 분회장이 직접 나서 속초 1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경로당으로 안내하여 지금에 이른 것이다.



◇영귀미면 속초 1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참여한 음악회

홍천군 영귀미면 속초 1리 경로당에서는 총 7개의 프로그램으로 한글교실, 건강 체조, 실버요가, 노래교실, 스마트폰 교육, 치매예방 교육, 시 창작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많게는 각 20여 명씩 참여하여 즐겁고 재미있게 정답도 나누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경로당의 92세 윤수만 어르신은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몸으로 경로당에서도 활

동하여 경로당 내에서 칭송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경로당 어르신 중 제일 연장자이신 98세 원수길 어르신은 농사일을 하면서 경로당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계신다. 많은 이에게 활력을 넣어 주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조연도 해 주신다고 했다. 전 군 의장이시며 현 영귀미면 속초 1리 경로당 용태식 이사는 “속초 1리 경로당이 어르신들 모두가 맛있는 음식 나눌 수 있는 쉼터의 역할과 즐겁게 교육도 받으며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 있는 웃음꽃의 전당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영귀미면 속초 1리 경로당 허남설 회장은 “전 회원이 모두 내 집같이 편히 쉬고 생활할 수 있으며 교육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도록 회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베이비붐세대, 은퇴 후 재정 대책 모색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입에 발린 말인가?

국민 모두가 헌법 조문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는 정도는 알 것이다. 이는 인간다운 삶을 누린다는 의미인데 단지 의식주 문제가 최소한만 해결되는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로 본다.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비롯한 노인 관련 규정의 대부분이 그렇다. 노인회 가입자격도 65세부터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69.4세였다. 지하철 무임승차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를 65세로 정한 것은 1964년이다. 거의 60년 전에 규정된 기준인데 당시의 65세와 지금의 65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다. 따라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변한 것이 노인의 건강 상태나 주거환경, 교육수준 등만이 아니다. 경제 상황, 욕구 내용, 가족구조 등도 바뀌었다. ‘인간다운 삶’은 최소한의 기준이 있고 나라와 지역에 따라 상대적이다.

노인 현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계승하여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이며 국민의 존경을 받음으로써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노인은 국가와 사회에 공이 많다. 그래서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 그렇고말고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우뚝 세운 주역이 아닌가! 노인 현장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는 의지도 천명되어 있다.

- ①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신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 ②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 ③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④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⑤노인은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기를 백 번 천 번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높은 노인 빈곤율 - 바닥으로 치닫는 삶의 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 24위이다. 스페인과 그리스보다 높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43.2%이다. 스페인이 11.6%, 그리스가 7.2%이다. 노인 빈곤율이 제일 낮은 프랑스는 4.4%이다. 복지나 빈곤율에 대해서는 파이 키우기 급급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것은 배부른 소리였던가?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아쉬운 생각이 든다. 노인이 모두 잘 사는 것을 노인복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최소한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말하지 말자.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면 된다고, 나물 먹고 물 마시면 된다고 미혹하지 말고 스스로 위로하지 말자. 그것은 우리 사회가 대부분 춥고 배고플 때 이야기다.

가난이 잘못이고 죄인가?

L씨(67세)는 최근 30여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 내 꼴 남 보이기 싫어서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나가지 않았었는데, 나이 60세 넘으면 모든 게 평균화된다는 세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처음에는 모두 반가워하는 자리였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나니 너 나 할 것 없이 제 성공담에, 실패한 동창들을 폄하하는 이야기다. 옛 친구들 만나러 나간 자리에 그는 미련하고 못난, 가난하고 불쌍한 죄인이 되었다. 어찌란 말이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 그러나 자식 셋 키우고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다였다. 정



년퇴직을 했는데 아내가 덜컥 암에 걸렸다. 이제 60도 안 됐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결국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이 무 썰리듯 잘려나갔다. 얹친 데 덮친 격으로 모시던 어머니에게 치매가 왔다. L씨는 힘들었다. 그리고 외로웠다. 자신은 아내와 노모를 챙겨야 하지만 그를 챙겨 줄 사람은 없다. 자식들은 제 앞가림 하기도 허덕이지 않는가! 그는 자식들한테 ‘괜찮다, 걱정 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암 환자인 아내와 치매를 앓는 노모를 병원이나 시설에 맡길 수도 없고 맡기고 싶지도 않다. 두 사람을 돌보느라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이제 재산이라고 하나 남은 집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L씨는 퇴직 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다. 행복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라하지는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다. 어쩌면 그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준비할 만한 형편은 아니었다. 생각이 짧았던 것일까? 하지만 생각했다고 대비될 수 있는 일이었을까? 뻔한 월급에 뻔한 살림이 아니던가!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까지 대처할 만큼 여유롭지는 않았다. 그가 빈곤의 위기에 내몰린 것은 그의 탓이고 그의 죄인가?

높은 노인 빈곤율, 누구의 책임인가?

헌법이 공포된 지 75년, 노인 현장이 공포된 지 41년이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단지 구두선이요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노인의 빈곤이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높은 노인 빈곤율은 국가의 책임이 있다. 이는 노인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물론 국가만의 책임도 아니다. 그러나 높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헌법 제10조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성문영 기자(sunggoodnews@naver.com)

무의탁 노인정책

남은 인생을 편하게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무려 900만 명을 넘었다. 총 901만 8천 명이 이제 노인이다. 전체 인구 5천만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 을 제외한 지방 지역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노인 인구는 1천만 명을 넘어 1,500만 명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홍천군 인구 초고령 속도가 역대 최고 속도로 빨리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 홍천군의 인구수는 2023년 3월 기준 67,759명이다. 이 중에 65세 이상인 분들이 20,514명이다. 총 인구 대비 약 27.9%(초고령 사회)이고, 출산율은 1.1%(초저출산)이다.

점차 증가 추세인 65세 이상의 노인, 남은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까?

고령화 사회로 인한 급속한 진전에 노인은 가족과 살아야 하는가? 자녀와 독립해서 지내야 하는가? 양로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해야 하는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한다. 또한 손자·손녀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족 간의 강한 유대관계와 정서적 교류는 노인들의 안락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각각 집안 사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살거나 양로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양로시설, 무의탁 노인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

노인이 나이가 들어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식주와 병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사는 것 이외의 대안으로 양로시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양로시설을 그저 예전의 '양로원'으로 생각해 '무의탁 노인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정확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양로시설에 입소하게 된다면 주거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요즘은 정부의 지원금 액수도 그리 적은 편은 아니어서 양로시설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개인 공간과 위생 상태, 식사 품질 등이 많

이 개선됐다. 따라서 양로시설을 너무 취약한 곳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혼자 사는 어르신이 집에서 식사 준비, 청소, 외로움 극복 등이 어렵다면 집에서의 생활이 양로시설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양로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기도 한다.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모여 생각도 공유하고 운동이나 취미생활도 함께 함으로써 노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노인들은 노년을 활기차고 재미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양로시설은 종류와 입소 대상 자격이 다양해서 지금부터라도 노후에 어떤 것이 좋은지 잘 살펴보면 본인에게 적합한 곳을 찾을 수도 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든, 양로시설에 입소해서 살아가든,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김명국 기자(kookcore@naver.com)

노인주거 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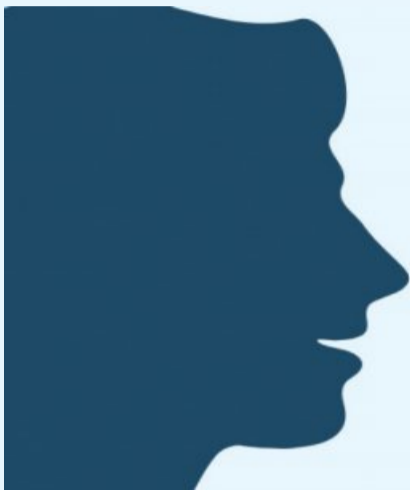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작은효도원	화촌면 굴운로 435-19	033-435-8996
벤엘실버타운	홍천읍 삼마치길 9번길 60-7	033-432-1553
인애원	북방면 성동로 949-23	033-433-7667
방주선교원	화촌면 도심리길 344번길 6	033-434-9378
안나원	두촌면 북창길 171	033-435-1372
빛난동산	화촌면 야시대로 210번길 108-16	033-432-9882
아름다운동행	영귀미면 공작산로 1098	033-436-5494

* 홍천군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복지 - 복지시설 - 노인



말의 중요성

입 조심, 말 조심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흰 구슬의 흠집은 갈아서 고치면 되지만 말의 잘못은 어찌할 수 없다. 가볍게 말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누구도 혀를 붙잡지 못하니 뱉어버린 말은 쫓아가 잡을 수 없다.

말이란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면 수습할 수 없다. 취소할 수도 없고 번복하기도 어렵다. 심지어 말이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었던 말(馬)이 달리는 것보다도 더 빨리 퍼진다. 따라서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을 더욱 무겁게 여겨야 한다. 하지만 말을 다스리기는 너무 어렵다. 빠른 만큼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말로써 그 말을 했던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대개 사람의 정서는 매양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성냄으로 바뀐다. 그래서 처음에는 꾸미려고 하고, 과격하게 되니, 허물을 고치는 것이 없는 것보다 어려운 까닭이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내는 모습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어찌면 내가 모르는 나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밖에 없는 허물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허물을 제대로 들여다볼 줄 모르는 교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 ♥ 유산이란 아이에게 무엇이 빛나고 있는지를 찾아주는 것이어야 한다.
- ♥ 배울 때를 놓치면 평생 어른이 되지 못한다.
- ♥ 경서를 가르쳐 줄 스승은 만나기 쉬우나 인격을 가르쳐 줄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
- ♥ 스스로에게 너그럽다면 모두에게 부끄러워진다.
- ♥ 악은 너무나 행하기 쉽고 흔하다. 그러나 악당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인생을 덩으로 사신다는 박말레 어르신을 만나 보았다.

기 자 : 박말레 어르신은 어째서 인생을 덩으로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르신 : 그러게요. 삶의 힘든 고비를 넘겼는데 이렇게 살아서 기자님 같은 사람도 만나네요.

기 자 :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어르신 :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여태 살고 있네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체중이 줄고 구역질이 나더니 나중에는 배도 살살 아프더라고요.

기 자 : 그런데도 병원에 안 가셨어요?

어르신 : 그게 병원이란 곳이 얼른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병이 더 커졌지 뭐예요.

기 자 : 저런!! 그래서요?

어르신 : 나중엔 배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 갔어요. 검사 결과 췌장암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기 자 : 그래서요? 췌장암 몇 기였어요?

어르신 : 3기에 막 들어섰다고 하던데 다행히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급하게 수술실로 실려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은 편이라고 하더니 여태 살고 있네요.

기 자 : 참으로 다행입니다. 박할머니는 슬하에 몇 남매를 두셨나요?

어르신 : 딸 셋, 아들 셋 이렇게 여섯을 낳았어요.

기 자 : 와~ 다복하시겠어요.

어르신 : 고맙게도 6남매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시집, 장가가서 자녀들 낳고 잘들 산답니다.

기 자 : 네~ 그렇군요. 박할머니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하신 멋진 일이 되겠어요.

어르신 : 그럴 것 같네요.

기 자 : 그런데요 어르신, 사람이 살면서 입을 잘못 사용해서 낭패를 당했다거나 상대가 말을 잘못해서 낭패를 당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르신 : 있다마다요. 남을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비난하는 거에는 자격이 필요하고 자격을 갖추게 되면 비난하지 않는 법이지요.

기 자 : 정말 명언이십니다.

어르신 : 꼭 입으로 말로 하지 않아도 세상 만물 중에는 오직 사람만이 마음을 소리로 듣고 부끄러워하지요.

기 자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 자 : 그게 연륜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어르신 : 그렇지 않겠어요? 나이를 그저 먹진 않지요. 허물며 마음도 들키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기 자 : 맞습니다. 조심은 넘쳐도 지나치지 않죠. 어르신은 그런 바른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셨겠습니다.

어르신 : 칭찬으로 들겠습니다.

기 자 : 어르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

한국의 금융과 자본(5)

1970년대 중동건설 붐과 2차 오일쇼크



1973년 걸프만 인근 산유국들은 석유를 무기화했다. 원유 가격은 치솟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세계는 '1차 오일쇼크'를 경험하였다. 반면에 1차 석유과

동은 산유국들의 호황을 불러왔다.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중동 산유국들은 건설 프로젝트 추진 중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로부터 흡수했는데 1975년도에 외국인 노동자 수가 37%에서 1985년에는 65%를 막대히 늘어났다. 당연히 한국도 중동 인력 진출을 빠르게 확대하였고 이는 중동 건설 붐의 시발점이 되었다. 1976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동경제협력위원회'를 두어 중동발 외화 획득에 박차를 가하였다.

정부는 1970년 초부터 유럽 및 미국 시장에 한국 기업을 진출시키기 시작했는데 지원금까지 제공하며 독려했다. 당시 영국 런던은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한국의 종합 무역상사,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 및 자재 공급을 위해 해외 지사를 설립하기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항만공사를 담당했고, 아세아건설은

산유국 수주 상담을 진행했으며, 삼환기업이 중동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맡았다. 그야말로 중동은 기회의 땅이었다. 많은 근로자들이 가난을 탈출하고자 중동 파견에 지원했다. 국내 건설 취업자와 중동 건설 취업자의 임금 격차는 무려 3.6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증권시장은 중동 건설 붐으로 건설주가 대세였다. 1975년부터 3년간 랠리를 계속했다. 건설업만을 따로 지수로 한 '건설업종합지수'는 1975년 1월 7.45%에서 1978년 6월 말 403.34%로 무려 53배나 폭등했다. 가히 건설주 광풍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아직 상장 전이었다. 동아건설산업과 대림산업은 연일 중동에서 사업 수주가 들어왔고 주가도 각각 14배, 6배 뛰었다.

삼환기업은 무려 4,000원 수준에서 8만 원으로 뛰었으니 20배가 쉼 셈이다. 상당한 거품이었다. 당황한 정부는 급기야 조치를 취해 전격적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다. 1년 동안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8.6%로, 대출 금리는 19%로 각각 4.2%, 3%로 인상되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그동안 거품이 낀 자산 가격은 수직 하강하였다. 1978년 6월 말 건설업 종합지수는 400%대에서 220%로 내려앉았다. 설상가상 격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정부 대응 안도 나왔다. 건설업은 한파를 맞이하였고 1979년

이란의 석유 수출 중단 발표로 '2차 오일쇼크'가 터지니 건설주는 회생 불능이 되었다. 이어 10.26 사태까지 겹치면서 주식시장 자체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위기는 연달아 이어진다. 건설업 활기로 국민들을 열광하게 하였던 건설주 광풍은 일단의 정부 조치로 거품이 꺼지면서 느지막이 광풍에 올라탄 '개미'들의 눈물을 쏟게 하였다. 급기야는 1978년 12월부터 79년 3월까지 이란의 석유 수출 금지 여파로 또 한 번 국민들의 주식에 대한 애정을 식게 하였다. 이른바 '2차 오일쇼크'였다. 이란의 석유 유전 노동자들이 부패한 팔레비 왕정 타도를 외치면서 벌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 석유수급의 차질은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원유의 현물가격이 폭등하고, 장기계약에 기초한 원유 가격도 상승하여 1배럴당 30달러 수준의 원유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는 1981년 소비국들의 수요 감퇴로 이를 우려한 산유국들의 협의체 'OPEC'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세계적 석유 수급이 완화될 때까지 이어졌다. 모든 수출품 생산을 석유에 의존하던 우리나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고 80년대 그 유명한 '3저(3低) 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 시대가 도래해서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또한 고자(告刺)는 예로부터 쓰이던 말로, '찔러 바침'이란 의미로 고자질의 원뜻에 가장 가깝다. 요즘도 "위에 찔러버리겠다, 신문에 찔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일삼는 이가 많으니 찔러 전한다는 '찌를 자(刺)'의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있다.

또 하나는 '고자'하면 생각나는 내시(內侍)로, 임금 옆에 붙어서 궁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임금에게 고했는데 여기서 유래된 환관들

고자질의 행위에는 권력관계가 숨어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몰래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 말 '일러바치다'에도 상하관계가 엮여있다. 즉, 고자질은 권력을 총동시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는 점이 낱말 속에 숨어있는 셈이다.

일러바치는 행위를 뜻하는 고자질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니듯이, 아이들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고도 집에 가서는 편장은 척했으므로 교권이 신성하게 지켜져 왔다.

누워서도 다스릴 수 있다는 평화로운 마을을 와치현(臥治縣)이라 자랑하고, 관가 출입을 싫어했던 순민들은 웬만한 다툼에도 송사(訟事)를 하지 않고 서로 화해하며 사람 사는 마을을 이루고 이웃사촌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민주화와 인권이 당연한 지금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법이 우선하려고 고자질을 부추기고 활성화 시키고 있다.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파파라치가 고발로 돈 벌고, 자칭 '정의의 사도'도 있어 이웃집 집안에 헛간이나 벽에 붙인 보일러실도 불법이라 신고하고, 이것저것 맘에 안 든다고 민원을 넣어 몽매한 순민들이 당하니, 사람 사는 마을에는 의심은 많아지고 믿음이 없어져 가 불안과 불신으로 살벌해지며, 지켜야 할 법을 원망하고 사람이 싫어지니, 이웃사촌은 없어져 가고 이웃도 멀어져가 외딴 집에 외롭게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

고자질의 이용과 유감

고자질이란 싸움질, 이간질, 도둑질 등과 같이 못되고 창피한 일이라 칭찬받지 못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고할 고(告), 놈 자(者)를 써서 고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집사자의 옆에서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칭한다.

이 사람을 '고자'라 불러 고자질이란 말이 됐다는 설도 있으나, 고자(告者)는 하늘에 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성한 호칭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밀고자(密告者)의 의미로 쓰이면서 세속화되었다. 몰래 알리는 자라는 의미로, 이것이 가장 고자의 유래에 가까워 보인다.

의 이야기를 비꼬아 고자질이 됐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남자가 아닌 상태에서 환관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 그들은 그 열등과 짜증을 수다로 푸는 경향이 많았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해선 안 될 말을 누설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고자들끼리 모여서 말을 많이 했다고 하여 고자질이란 말이 나왔다고도 한다.

이 자신의 보호와 뒤를 봐달라고 일러바치는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일러바치는 짓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호되게 혼내주는 것이 어른의 훈육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어린애들끼리 싸우다 다쳐서 울고불고하다가도 부모님에게 일러바치기보다는 놀다가 넘어졌다 고 거짓말을 해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선생님들까지 곤욕을 치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의 민관협치기관

홍천의 전반적인 군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로 뛰어다니는 군과 민의 사회복지 관계망 중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찾은 것은 사회복지대학총동문회(회장 라운길)의 봉사 활동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권영택 회장님을 찾은 아담한 사무실 입구에는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의 간판과 더불어 홍천군 기초푸드뱅크 간판이 같이 붙어 있었다.

기초푸드뱅크란 광역푸드뱅크 연계로 홍천군 관내·외 지역 기업에서 후원하는 식자재를 수집 후 복지 사각지대 내 취약계층에게 물품을 후원하는 단체이며 각 마을 단위로 수급자의 거주지로 배달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그 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받은 연간 2천만 원을 위탁받아 수급자가 아닌 대상자도 긴급 상황일 때 심의 후 5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 및 물품을 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위기구호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갈마곡리와 두촌면 일원 537명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관내 사회복지대학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자원봉사자 양성 및 발굴, 사회복지대학총동문회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립적인 입장의 민관 협치로 복지 사각지대나 차상위 계층, 독거어르신들을 세밀하고 세부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권영택 회장님은 "협의회가 민간 분야 사회복지 실시로 관에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잘 살피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며, 특히 고령화 사회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고 농촌 고령층의 복지 부분을 집중 고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 건물 앞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권영택

려해야 할 사항이다."라며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활성화, 인식 개선,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올해도 관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지게 될 것이다. 진정한 봉사란 조건 없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행동으로 이루어져 끝났을 때 충만함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행연 기자 (bonbon2202@naver.com)

인물탐방, 가수 꽃송이

홍천의 자랑 장구치며 노래하는 홍천 가수 꽃송이를 소개합니다



◇홍천중앙시장과 홍천노인대학에서 공연하는 꽃송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고 연고도 없는 낯선 홍천으로 귀촌을 하게 되었다.

홍천지역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풍당풍당 문화센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가수 꽃송이를 노래 교실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노래·웃음 레크리에이션 강사, 장구 치며 노래하는 가수로서 도전하며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모습은 여러 사람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기 자: 꽃송이 가수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꽃송이: 안녕하세요. 장구 치며 노래하는 가수 꽃송이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 자: 홍천이 고향이신가요?

꽃송이: 네 홍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를 모두 홍천에서 다닌 홍천 토박이예요.

기 자: 그렇군요. 그럼 어려서부터 가수의 꿈을 꾸었나요?

꽃송이: 가수가 꿈은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하는 긍정적인 성격이었어요.

기 자: 지금처럼 가수로 활동하기 이전의 삶은 어떠했나요?

꽃송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취직을 했어요. 그 후 결혼을 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 간호사로서 보람을 느끼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조금씩 제 삶에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기 자: 삶의 변화라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꽃송이: 요양병원에서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건강 지도 및 레크리에이션 웃음 치료 등 다양한 방식의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기 자: 그럼 지금 가수 활동만 하고 계시나요?

꽃송이: 가수,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20여 년 강의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20여 종 자격증을 취득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웃고 즐기며 새로운 인생 3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 자: 인생 3막이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가수님은 거침없이 새로운 길 향해 성큼성큼 가는 느낌입니다. 비결이 뭐라도 있을까요?

꽃송이: 저는 '딱 10년만 짧게 살자,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 10년씩 짧게 살기로 했던 거 같아요.

기 자: 그런 비결이 있었군요. 저도 한 번 실천을 해보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꽃송이: 각종 공연, 행사, 특강을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기 자: 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기본적 덕목인 효를 실천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희망을 바라보는 홍천의 자랑 꽃송이 가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신순금 기자 (sungum@hanmail.net)